

2026학년도 제1차 마이크로디그리 교양대학 간담회

일시 : 2026년 4월 27일 (월) 17:00

장소 : 말씀관 첨단강의실 1106호

I. 논의안건

1) 전공·교양·마이크로디그리 수강 현황 관련 논의

■ 전공 수업 수강률 감소 및 교양·마이크로디그리 선택 증가 원인 논의

- ▶ 마이크로디그리 교양대학: 학생들의 전공 수업 수강 감소 및 교양·마이크로디그리 선택 증가 경향과 관련하여, 총학생회 측에 재학생들의 인식과 현황에 대한 의견을 질의함. 또한, 일부 교수진은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확대가 전공 수업 수강 인원 감소로 이어져 향후 전공 교과목 축소 또는 폐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을 설명함.
- ▶ 총학생회장: 3~4학년의 경우, 전공 필수 과목을 대부분 이수한 상태이므로 다양한 교양 과목을 수강하거나 졸업 이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공 과목보다 교양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함. 또한, 학생들이 수강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교수진의 강의 커리큘럼 및 수업 운영 방식에 따라 동일 학과 내에서도 수강 수요가 높은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이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고 답변함. 아울러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졸업 요건과 진로, 국가고시 준비 과정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역량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며,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학점이 졸업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전공 교과목이 본인의 진로 및 미래 계획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함.
- ▶ 마이크로디그리 교양대학: 일부 학과에서 교양 및 마이크로디그리 확대가 전공 수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교육부 정책 방향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추세라고 설명함. 또한, 학생들의 수강 선택이 중요해진 만큼 전공 교과목 역시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선과 최신 동향 반영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과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아울러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과목 개설을 위해 학과 측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 교양 교과목 개편 방향

■ 교양 전면 개편 추진

- 교양대학은 약 4년 만에 교양 교과를 전면 개편하여 봉사, 소통, 창의, 도전의 4대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학생 자문단 의견을 반영하여 인기 수업 및 대형 강의를 확대한 것임을 설명.

■ 성적 평가 방식 변화

- 기존 교양 교과목의 비대면·원격 중심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평가 방식 관련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성적 평가 기준을 조정하였다고 설명함.
- 절대평가 및 완화된 평가 체계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참여와 수업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함.

■ 비대면 수업 축소 방향

-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원격수업 경험이 확대되었으나, 대학 교육의 기본 방향은 대면 수업에 있으며, 교육부 또한 비대면 수업 비율 축소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함.
- ▶ 마이크로디그리 교양대학: 대면 수업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의견을 질의함.
- ▶ 총학생회장: 일부 학생들은 대면 수업이 학습 집중도와 참여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강 편의성 등의 이유로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고 답변함.

3) 학생 의견 반영 교과목 운영 방안 논의

■ 학생 참여형 교과 개발

-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과목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경우, 교양대학에서 이를 검토하여 신규 교과목 개발 및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함.
- 학생 수요를 보다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 총학생회 차원의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 협조를 요청함.

- 학생 수요 기반 교과목 사례로 '사랑과 연애의 심리학', '인생 설계 및 자기계발', 재테크, 뷰티·패션·문화 분야, 영어 트랙 기반 교과목 등에 대한 개설 요구가 있었음을 공유함.

■ 영어 강의 확대

-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영어 기반 교과목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영어 교과목의 경우 절대평가(P/F 방식 포함)를 적용하여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4) 토론·발표 중심 수업 운영 관련 의견

■ 학생 참여형 수업

- ▶ 마이크로디그리 교양대학: 학생 참여형 수업에 관해 학생들의 인식 및 의견에 대해 질의함.
- ▶ 총학생회 교류국 국장: 일부 학생들은 자유로운 토론 방식 수업이 논리적 사고와 발표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조별 토론 및 의견 교환이 활발한 수업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함. 다만, 발표 및 조별 활동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도 존재한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함.
- ▶ 마이크로디그리 교양대학: 학생 성향에 맞춘 다양한 수업 방식을 마련하는 방향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함.

5) AI 융합대학 관련 안내

■ 동두천 캠퍼스 이전

- AI 융합대학 신설과 관련하여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특정 학과의 동두천 캠퍼스 이전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었음을 공유함.
- 이에 대해 대학 본부는 기존 학과 체계는 유지된 상태에서 단과대학 명칭 및 구조만 개편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하였으며, 현재 의정부 캠퍼스 소속 학과의 타 캠퍼스 이전 계획은 없다고 안내함.

6) 졸업 및 폐강 관련 행정 지원

■ 졸업 예정자 보호 조치

- 학교 측은 교과목 폐강으로 인해 학생들의 졸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함.
- 특히 졸업 예정자의 경우 수강 조정 및 대체 교과목 이수 지원 등을 통해 졸업 요건 충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함.

- ▶ 마이크로디그리 교양대학: 수강신청 변경 및 폐강 안내에 대한 학생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뉴스 제작 등 안내·홍보 강화를 요청함.
- ▶ 총학생회장: 신한대학교 홈페이지의 학사 공지사항을 더욱 수시로 확인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답변함.

II. 기타안건

1) 교양대학 향후 추진 사항

- 학생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신규 교과목 제안 및 의견 수렴 체계 확대
- 영어 기반 및 창의·융합형 교과목 개발 추진
-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방식 확대 검토
- AI 융합대학 관련 정보 제공 및 안내 강화
- 학생회와 교양대학 간 정기 간담회 지속 추진

2) 학생회-교양대학 협력 및 소통 방안

- 학생 의견 지속 수렴
- 정기·추가 간담회 진행
- 행사 및 프로그램 협업 확대

III. 폐회 (17:55)